군민(軍民) 협동과 영화 상영: 강원도 '군인극장'*

위경혜** ***

1. 서론
2. 군단(軍團) 소재지 '오락시설'
3. 일반 상업극장의 현지화(現地化)
   3-1. 군인극장 운영 방식
   3-2. 군인극장 관객 구성
4. 군인극장과 지역 극장문화 재편
   4-1. 국책 선전 확대 및 도시문화 대리 경험
   4-2. 군부대 수익 사업
   4-3. 극장 구도 재편과 영화 상영 및 관람 문화 변화
5. 군인극장의 지역성
6.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냉전시기 영화 상영문화의 지역성을 살피기 위해 강원도 비도시 군인극장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군인극장은 195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강원도 군단(軍團) 소재 지역 일대에서 개관한 군인과 민간인 대상 극장을 일컫는다.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핀 내용은 군인극장 개관 및 운영 방식, 군인극장 기능 및 역할, 관객 구성, 군인극장과 극장 산업 그리고 군인극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390).

** 전남대학교 강사.

*** 논문의 완성을 위해 비평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www.kci.go.kr

장의 지역성이다. 연구를 위해 문헌 자료를 포함한 군인극장 및 문화 단체 관련자 구술 증언을 재구성하고 분석했다. 구술 증언을 역사 기술(記述)의 방법으로 선정한 이유는 군인극장 관련 문헌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이외에, 일상생활 경험으로서 군인극장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군인극장은 일반 상업극장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군인극장 상영 작품 목록이 군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 여성이 군인과 함께 관객 구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었다. 군인극장은 대중매체 접근성이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문화 대체 경험의 장소로 기능했다. 또한 군인극장 개관은 가설극장과 순업에 의한 영화 소비 관행을 소멸시키고 지역 극장 구도를 재편하였다. 무엇보다도, 군인극장은 지역 영화 상영 창구(窓口)를 일원화하면서 문화 전파 기구의 통일을 꾀하고 여론 형성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강원도 비도시 군인극장 연구는 그동안 역사 기술에서 누락 또는 삭제된 기록을 발굴하여 지역사와 한국영화사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지역 영화 상영 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강원도, 영화 상영, 극장, 군인극장, 군부대, 순업, 냉전, 지역성, 성매매 여성,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오락시설, 극장문화, 문화관, 문화원)

www.kci.go.kr

1. 서론

영화는 장소와 공간 그리고 관객에 따라 달리 상영되고 수용되며 이해되는 문화적 실체이다. 영화는 특정 시기 사회 상황과 상영 맥락에 따라 관객의 극장 경험을 규정하고 관객이 속한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영화사는 텍스트(texts)를 넘어 상영과 관람에 주목하는 동시에 도시를 벗어나 비도시를 아우르며 기술(記述)되어야 한다.

이 글은 영화 상영 문화를 살피는 일환으로 강원도 군단(軍團) 소재지에 설립된 군인극장에 주목한다. 1959년 7월 국방부는 전방(前方)지구 각 군단 소재지에 극장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군인극장은 경기도 포천 한 곳을 포함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고성 등지에서 문을 열었다. 강원도 비도시 지역 군인극장은 1959년 개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지만, 그것의 존재는 1977년 영화진흥공사 발간『한국영화자료편람』에 명시되기 이전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1)]

따라서 군인극장 연구는 기록되지 않은 지역 문화사를 발굴・재구성하여 영화와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규명하는 의의를 갖는다. 군인극장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영화 중흥 시기와 침체기를 경유하는 동안 서울을 벗어난 비도시 지역 극장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나아가 군인극장은 냉전시기 극장문화를 살필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 군인극장이 분단의 최전선이자 한국전쟁이후 수복(收復) 지역 그리고 대규모 군인

1) 군인극장 존재는 1969년과 1970년대 후반 발간된 극장 관련 공식 자료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1969년 국제영화사가 발간한『1970 영화연예연감』이나 1977년 영화진흥공사가 펴낸『한국영화연감』에도 이들 기록은 없다.

www.kci.go.kr

과 이주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지역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필 내용은 강원도 지역별 군인극장 개관과 운영방식 및 관객 구성, 군인극장의 기능 및 역할과 지역 내 위상, 군인극장 개관과 극장문화 변화 그리고 지역성 등이다. 군인극장의 역사성 규명을 위해 취한 방법은 구술사이다. 구술사는 군인극장 관련 문헌자료의 절대적 부재와[2] 잔존하는 기록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생활경험으로서 극장 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기술 방법론이다. 구술 내용(oral accounts)은 군인극장의 역사적 특성을 밝히는 데이터(data)이자 군인극장 공간을 둘러싸고 펼쳐진 문화 실천과 행위를 해석하기 위한 소재(素材)로 쓰인다. 구술 증언은 군인극장 설립 의도와 목적 그리고 군(軍) 기관(機關)의 공식 기록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군인극장을 둘러싼 영화 상영과 지역민/관객의 극장가기(cinema-going) 경험을 드러낼 것이다.

2. 군단(軍團) 소재지 '오락시설'

1956년 현재 강원도 극장은 춘천과 홍천, 원주, 강릉 그리고 삼척 등 단지 6개 곳에만 영업하고 있었다.[3] 지역 극장은 1950년대 후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2년에 19개에 이르렀지만, 주로 원주와 춘천 그리고 강릉 등 도시에 국한된 일이었다. 비도시 가운데 극장이 개관한 곳은 양양과 명주를 포함한 양구, 홍천 그리고 영월이었다.[4] 양양과 명주 지역

2) 2013년 11월 1일 현재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민원담당 주무관 김OO에 따르면, 각 군단 군인극장 활동 세부 정보에 관한 문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이관되지 않는 각 부대 관련 기록과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이상학 저, 『강원도지』, 동서문화사, 단기 4289(1956), 430쪽.

4)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499쪽.

www.kci.go.kr

극장은 당시 양양군 속초읍 2곳과 명주군 주문진읍과 묵호읍 발한리 2곳에 존재했는데, 이는 동해 항구를 생계 터전으로 삼아 몰려든 인구 증가에서 기인했다. 양구와 홍천 그리고 영월은 지역별로 1곳만 극장을 운영했는데, 양구와 홍천은 상설 영화관이 아니었는지 명칭도 '극장'이 아니라 '문화관'이었다. 게다가 1960년대 초반까지 평창, 진부, 대화 그리고 정선 등 내륙 산간 지역과 도계 등 탄광 지역은 극장의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9년 7월 국방부가 전방(前方) 지구에 극장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오락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극장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1960년까지 군단(軍團) 소재지에 4개 극장을 설립하고 1961년까지 8개 극장 추가 건립을 목표로 삼았다. 국방부는 극장 건립을 위해 8백만 환에 더하여 미군(美軍) 대민(對民) 원조사업비 1만 7천 달러(dollars)까지 계상(計上)하였다.[5]

군인극장 설립 발표는 1960년대 중후반까지 전국 대비 극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원도 특히, 비도시 지역 극장 문화의 변화를 시사했다. 군인극장 등장 이전, 강원도 비도시 지역 영화 상영은 지역의 공공장(公共場) - 일제강점기 설립된 공회당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등장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미국 문화 전파 기구 – 이나 순업(巡業)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극장은 경기도 포천군을 제외하면,[6] 모두 강원도 분단 최전선에

5) 원문 기사에 따르면, 미군 대미 원조사업비는 '1만7천원 딸라'이다. 오타로 추측되어 본문에는 '1만 7천 달러'로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군인극장신설 각군단소재지(各軍團所在地)에」, 『동아일보』, 1959.7.30., 석3면.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오락시설로서 전방지구에 극장(劇場)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 내년 안으로 동계획에 의거한 4개의 극장이 우선 각 군단 소재지에 건립될 것이라고 한다. 동 건설 기금으로서 환화 8백만환과 「미군대민원조사업비」 1만7천원 「딸라」가 계상되었으며 차기 년도에는 8개 극장이 동 계획에 의해 건립될 것이라고 한다."

www.kci.go.kr

집중하여 문을 열었다. 국방부 주도 극장 설립은 반공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 권력의 지역별 냉전문화 형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극장은 1959년 국방부 발표 이전에 이미 도시 - 원주시와 대전시 - 에서 영업하고 있었다.[7] 원주는 한국전쟁 동안 동부전선 전투 담당 육군 1군 총괄 사령부 주둔과 전후 군부대 집결지가 되면서 군인극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주 군인극장은 휴전과 그리 멀지 않은 1956년 1월 한미(韓美) 장성(將星)이 참석한 가운데 제1군 개관식을 가졌으며[8], 1957년 5월 화재로 극장이 전소(全燒)되자[9] 1958년 1월 1,000석 규모의 대극장으로 재개관했다.[10] 이 기간 동안 군인극장은 원주지구 각 부대 군인 가족 위안회[11], 소련 기자 귀순 환영 그리고 반공 관련 강연회를 개최했다.[12] 1961년 원주 군인극장은 일산동 212번지에서 864석 규모로 거듭나는데, '재원지구(在原地區) 군인 복지향상과 정서함양 기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4회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주당 관객은 1,680명에 이르

6) 경기도 지역 '군인극장'은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237번지에 있었다. 1965년 9월 29일 개관한 '군인극장'은 802석 2층짜리 공유 극장이었다.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 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182쪽.

7) 1950년대 후반 원주의 군인극장 연구는 다음을 참고.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 543~581쪽.

8) 「원주에 군인극장」, 『서울신문』, 1956.1.14., 3면.

9) 「원주 군인극장 전소. 1일 저녁 인명피해 경미」, 『조선일보』, 1957.5.2., 2면. "1일 하오 6시 30분경 원주시 중앙동 군인극장에 돌연 화재가 발생하여 건평 292평의 2층 건물이 전소된 후 동 7시 30분경 전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구경하던 사람 넷이 경상을 입었다는데 한·미 소방대의 필사적인 소화 작업으로 인근의 연소는 방지되었고, 화제의 원인은 아직 불명인바 손해액은 약천만환으로 추산되고 있다."

10) 「군인극장 개관」, 『조선일보』1958.1.3., 석7면. "새해를 맞아 원주시에서는 군인극장이 개관되었다. 그런데 이 군인극장은 제1군 사령부에서 공병대로 하여금 건축케 한 것으로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좌석 1천개를 가진 건평 3백 평의 건물을 지난 30일에 준공 개관한 것이다."

11) 「군인극장 위안회성황」, 『강원일보』, 1958.5.7., 2면.

12) 「귀순환영대회」, 『강원일보』, 1959.6.17., 2면.

www.kci.go.kr

렀다. 원주 군인극장은 서울 경강영화 배급협회를 통해 필름을 배정받았고[13], 민간인의 극장 입장도 가능해 일반 상업극장과 다르지 않았다.

대전시 군인극장은 전후 군인극장 설립을 적극 추진한 원주 지역과 다른 행보를 걸었다. 1959년 대전시 3관구사령부(三管區司令部) 직영 군인극장이 극장 이전을 둘러싸고 대전고등학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군인극장이 대전시 대흥동(大興洞) 대전고등학교에서 불과 1백 미터 거리에 위치한 까닭에, 학원 환경 정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 요청을 받고 있었다.[14] 게다가, 지역 여론이 당시까지 대전고등학교 교정(校庭)에 주둔한 미군통신부대(美軍通信部隊)를 문제 삼으면서, 군인극장의 입지는 더욱 불편해졌다. 전후 지역별로 군인극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전개되는데, 후방(後方) 도시 군인극장이 사라지는 동안 분단의 접경지 강원도 군인극장은 속속 문을 열었다. 1977년 영화진흥공사가 발표한 강원도 군(郡) 단위 군인극장 목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강원도 비도시 군인극장(1977년 기준 현재)

공연장명	공연장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허가년월일	상영 구분
			좌석	입석	계		
화천 군인극장	화천군 화천면 하리	육군 2군단 본부사령	712	70	182	68. 3. 11	재상영
오음리 군인극장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육군 2군단 본부사령	371	30	401	68. 3. 11	재상영
사방거리 군인극장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육군 2군단 본부사령	450	45	495	63. 3. 1	재상영
사창리 군인극장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육군 2군단 본부사령	440	44	484	63. 3. 1	재상영
군인극장	양구군 양구 중리	김두경	858	80	939	66. 3. 18	재상영
설악극장	인제군 북면 원통리	육군 3군단 본부사령	300	150	450	69. 7. 30	재상영

13) 원주문화원향토지편찬위원회 편저, 『원주원성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453쪽.
14) 「군인극장이 불응. 학교 주변 환경 정리에」, 『조선일보』, 1959.2.12., 4면.

www.kci.go.kr

현리 군인극장	인제군 기린면 현리	육군 제5289부대 본부사령	497	50	547	74. 1. 19	재상영

출처: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172~173쪽, 〈전국 공연장(극장) 일람〉 발췌.

참고: 영화진흥공사 기록은 일부 오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화천 군인극장'은 '화천 군인극장'으로, 설악극장 대표자는 3군단 본부사령으로 정정하였다.

〈표 1〉에 따르면, 화천과 양구 그리고 인제 군인극장이 1960년대 중후반부터 영업한 것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서울 일간지와 강원도 지역 신문 그리고 영사기사 구술 증언에 따르면, 이들 극장 가운데 일부는 기록보다 훨씬 앞서 개관하였다. 즉, 육군 2군단 본부 사령부 운영 화천군 화천면 하리 군인극장은 1968년이 아니라 1960년 6월 15일 문을 열었다.[15] 700여명의 관객을 수용한 하리 군인극장은 "제2군단장을 비롯(하)여 인근 주둔 사단장 등 군관민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개봉작으로 〈로맨스빠빠〉(신상옥, 1960)를 상영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군인극장이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마친 작품을 상영한 관례를 고려하면, 하리 군인극장의 개봉 작품 상영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군인극장 운영에 공을 들인 것이다.

육군 2군단 운영 군인극장은 화천군 화천면 하리 군인극장을 비롯해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산양리 그리고 사내면 사창리 4곳이었다. 2군단 3개 사단 - 최전방에 주둔한 7사단과 15사단 그리고 예비사단 27사단 - 병력(兵力)이 화천군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 3월 군인극

15) 「〈내고장소식〉군인극장 개관」, 『조선일보』, 1960.6.15., 4면. "(화천) 그간 공사 중에 있던 군인극장이 준공되어 지난 10일 하오 2시 제2군단장을 비롯(하)여 인근 주둔 사단장 등 군관민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동 극장은 4천3백만환의 공사비로 작년 12월 3일에 착공하였던 것으로 7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2층 건물이 완성된 것이다. 이날 개관 축하 「푸로」는 「로맨스파파」를 상영하여 주민 3천여명을 위안했다(사진은 군인극장)."

www.kci.go.kr

장을 개관한 간동면 오음리는 월남전 파병훈련소가 주재한 곳이었다.

한편, 〈표 1〉에 기록된 것과 달리 육군 3군단 운영 극장은 모두 6개 - 양구군 양구읍 중리 군인극장, 인제군 인제읍 문화관,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인제군 기린면 현리 군인극장, 인제군 남면 신남리 군인극장, 그리고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군인극장 - 이었다.[16] 이 가운데 양구군 중리 군인극장은 1959년에 문을 열었다. 군인극장 건물은 모두 군단에 의해 건립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인제군 인제읍은 '문화관'[17] 건물을 군인극장으로 이용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군인극장은 군단과 지역을 확대해가며 설립되었다. 1970년 육군 8군단 운영 고성군 간성면 하리 간성문화관, 1974년 육군 3군단 운영 인제군 기리면 현리 군인극장, 그리고 1975년 육군 5군단 사령부 운영 철원군 갈말면 신철원리 신철원문화관이 문을 열었다.[18]

---

16)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김승기는 1939년생이지만 주민등록에 194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승기 구술에서 언급하는 나이는 그의 출생 연도를 기반으로 한다. 어린 시절 평창군에서 거주한 김승기는 한국전쟁 발발로 중등 교육을 중단하였다. 16살이 되던 해, 김승기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평창군에서 인제군 원통까지 3박 4일 동안 걸어서 이사를 했다. 원통에서 잡일을 하던 김승기는 19살부터 월남민 김창선이 운영한 16mm 순업 일행과 동행하면서 흥행일을 시작했다. 순업의 영화 포스터(poster) 그림을 그리던 김승기는 동료 순업 영사기사의 일을 도우면서 영사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1964년 영사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원주와 강릉, 속초 일대 극장의 영사기사로 일하다가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였다. 군 복무 동안 설악극장 영사기사로 일했으며, 1972년 제대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설악극장 영사기사로 일했다. 육군 3군단 운영 6개 극장 가운데 유일하게 영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김승기는 3군단 관내 모든 극장 영사실을 순회하면서 사병들에게 영사기 작동 및 관리 방법을 가르쳤다. 제대 이후 원통에서 만화방과 서울여관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2월 현재까지 원통에서 거주하고 있다.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과 2014년 2월 12일.

17) 현재 인제군 인제읍 인제문화원이 군인극장으로 이용되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4년 2월 12일.

18) 한국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77』, 1978, 182~183쪽.

www.kci.go.kr

신철원문화관은 240석을 갖춘 가설극장이었으나 지역민 사이에서 군인극장으로 불리며 운영되었다.[19] 철원군 소재 군인극장은 갈말읍 문혜리 역시 포함하는데, 갈말읍 지경리 22연대 본부가 문혜리에 주둔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비도시 지역 군인극장 개관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은 1959년 국방부의 군인극장 건립 발표 시기에 맞춰 강원일보가 '군인페이지'를 신설한 점이다. 강원일보는 1959년 2월 5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군인페이지 신설을 알리고 군인들의 원고와 군부(軍部) 소식을 싣기 시작했다. 군인페이지 신설은 전군(全軍) 종합일간지 가운데 최초로 벌어진 일이었으며, 일요(日曜) 배판(培版) 발행을 계기로 매주 1회 일요일자 2면에 기사를 실었다. 군인페이지는 "씩씩하게 자라나는 국군의 위용(威容)을 널리 강호제언(江湖諸彦)에게 소개하여 후방 국민들의 군(軍)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하고, "병사들 자신이 몸소 영내(營內) 생활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체험한 바 적나나(赤裸裸)한 수기를 수록 게재함으로써 앞날의 귀중한 사적 문헌의 자료"[20]로 쓰겠다고 밝혔다. 후일 단행본 간행까지 계획한 군인페이지 원고는 병영 생활수기, 미담가화(美談佳話), 후방 국민에 대한 요망, 고향에 보내는 소식, 전투수기 그리고 부대(部隊) 탐방 및 지휘관 인터뷰 기사를 전달했다. 지역 일간지를 대표한 강원일보의 군인페이지 도입은 지역 구성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군인을 지역민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치였다. 군인극장 신설에 때맞춘 군인페이지 등장은 전쟁과 휴전으로 인해 형성된 군인 집결지 강원도 비도시 지역 일상의 단면이었다.

---

19) 철원군 철원문화원장 김준수(1938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9일; 철원군 신철원문화관(속칭 '신철원군인극장' 매점 관리인 이건영(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9일.

20) 강원일보사, 『강원일보사십년사』, 1985, 127~128쪽.

www.kci.go.kr

3. 일반 상업극장의 현지화(現地化)

3-1. 군인극장 운영 방식

군인극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 사병과 책임을 맡은 상사(上士) 이상의 간부급 군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극장 운영 인력은 입장표 판매와 관객 관리 그리고 건물 청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주말의 경우, 군인극장 인력은 각 부대 수송병을 포함하여 20여명까지 늘어났다. 군인극장 근무자는 절대적으로 군인들이었으나 필요에 따라 민간인이 결합하였다. 민간인은 관객 관리와 영화 포스터 부착 등 허드렛일을 하거나, 매점을 임대・운영하는 대가로 근무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군인극장 운영은 군(軍)이 주도하고 민(民)이 협동하는 방식이었다.

군인극장 프로그램은 일반 상업극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군인극장 상영 목록은 대한뉴스 등 선전영화와 광고 슬라이드(slides) 그리고 극영화로 구성되었다. 드물게, 영화 이외에 악극(樂劇)이나 국극(國劇)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일반 상업극장과 다른 점이라면, 군인극장이 '군(軍)' 영화 -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10분 분량의 '국방뉴스'를 지칭[21] -를 선전영화 상영에 포함시킨 점이지만,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광고 슬라이드는 군부대 소재 지역 상가(商家)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22] 업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것들이었다. 군인극장 상영 극영화는 서울 소재 영화사 프로그래밍(programming) 담당자와 직접 거

21) 국군홍보관리소 편, 『군영화사십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2.
22) 광고 슬라이드는 각 30초 분량으로, 보통 4~5개 슬라이드를 음성 지원 없이 스크린(screen)에 제시하는 형식이었다.

www.kci.go.kr

래를 통해 제공받았다.[23] 하지만 상영 영화 목록은 극장 운영 책임자 상사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다.[24]

영화는 평균 이틀 상영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되었지만, 대부분 개봉한지 2~3년이 지난 것들이었다. 개봉 영화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개봉관과 재개봉관을 거치고 나서야 군인극장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군인극장에 배급된 영화는 원본 필름을 복사한 것이어서 화질 상태는 양호하였다. 군인극장 선전 방식 역시 일반 상업극장과 다르지 않았다. 군인극장은 군부대 차량을 이용해 해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민의 영화 관람을 촉구했다. 1966년까지도 "친애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오늘도..."라는 멘트로 시작되는 군인극장 영화 선전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25] 군인극장은 군인만이 아니라 군부대 소재 지역민 모두의 극장이었기 때문이다.

3-2. 군인극장 관객 구성

군인극장은 '군인에게 오락 제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지역민 전체를

23) "필름 배급은 영화사하고 직접 거래했어요. 국방부하곤 관계가 없어요."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24) 제3군단 소속 군인극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운영된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책임자는 상사 직급의 이상재였다. 그는 1960년대 후반 3군단 산하 6개 군인극장 역시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4년 2월 12일.

25)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관객 출입 관리 담당 최광일(1947년생)의 구술. 최광일은 1966년 고교를 졸업한 이후, 육군 제3군단 소령 이기현의 소개로 1968년부터 1년 반 동안 원통 설악극장에서 '기도(きど, 木戸, 문지기) 즉, 극장 관객 출입 관리를 담당했다. 인제군 인제 읍내에 거주한 최광일은 원통과 인제를 매일 오가며 극장에서 일했다. 최광일은 1969년 7월 입대하면서 흥행계와 멀어졌고, 제대이후인 1972년 인제군청 직원으로 취직했다.

www.kci.go.kr

대상으로 영업했다. 군단 소재지는 대부분 원주민 비율이 낮고 월남민과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지역민을 구성하고 있었다. 군인 집결지인 만큼 군부대를 상대로 생계를 꾸린 사람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아서, 육군 2군단이 자리한 화천군 지역민은 1960년대에 이미 5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

3군단이 인제군에서 운영한 군인극장 관객을 살펴보면, 한국전쟁과 휴전 그리고 군부대 집결지라는 지역 공간 변화와 이에 따른 극장문화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휴전과 그리 멀지 않은 1955년, 인제군 원통 지역의 군부대를 제외한 민간인 주택은 단지 10여 채에 불과했다. 하지만 원통은 3군단 관할 3개 사단(師團)은 물론, 사단 이하 직할 부대 및 포대를 포함해 전체 6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군인 숫자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군부대를 구심으로 일상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의 주요 관객은 당연히 군인이었다. 하지만 평일과 주말에 따라 관객 구성비가 달랐는데, 평일 극장 관객의 70%를 군인이 차지했다면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채웠다. 주말 군인극장 관객은 단연코 군인들이었다.[26] 군부대 수송부가 실어 나른 병사 숫자는 평일 1~2대(臺) 차량인데 비해, 주말이 되면 10여대 차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절되어 주중 오후와 저녁 2회에 그치던 것이 주말에 3~4회로 늘어났다. 군인 관객 증가는 주말은 물론 명절에도 이어졌다. 명절이 되면 군인은 물론 지역민 관객 숫자도 급증하여, 극장은 정원 초과를 넘어 입석까지 빼곡히 들어차는 일이 흔했다.[27]

---

26) 이와 같은 상황은 2군단이 운영한 화천군 군인극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27) 최광일은 명절 때 정원수 300석에 불과한 설악극장에 "1,000명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www.kci.go.kr

설악극장에서 근무한 영사기사의 구술에 따르면, 설악극장 평일 낮 시간 민간인 주요 관객은 군부대를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한 특정 부류의 직업 집단 즉,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원통에 "하우스, 몸 파는 아가씨들" 영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술집으로 대표되는 유흥업소가 증가한 결과였다.[28] 유흥업소 별로 평균 7~8명의 여성이 상주하였으며, 10여명 이상을 고용한 업소도 다수 존재했다. 군 소재지 일반 지역민의 유흥업소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존재가 군인들의 영화 관람에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군인들이 극장에서 유흥업소 여성과 만나는 것에 호의적이었다는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29]

군인과 유흥업소 성매매 여성이 설악극장의 주요 관객을 형성해서인지, 상영 작품은 대부분 미성년자 관람불가 즉, "영화가 난(음란 淫亂 - 필자 주)한" 것들이 많았다.[30] 군인극장이 성인 대상 작품을 자주 상영

기억한다. 최광일의 구술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설악극장의 흥행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든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관객 출입 관리 담당 최광일(1947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6일.

28) "60년도부터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59년돈가? 58년돈가? 이때부터 번창하기 시작해서 집이 매번 들어서고, 들어서고 이러다가...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하우스, 몸 파는 아가씨들, 그 다음에 이제 술집들, 아가씨들 데리고 하는 그 막걸리 파는 집들이 생겼지. 소주도 없었고 막걸리, 막걸리 색시집이 여기가 한 30군데 되었어요."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29) 이에 대해서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참고. 김승기에 따르면, "(직업여성들이 – 필자 주) 그 밤으로는 영업해야 되니까 낮으로만 와서 봤죠. 낮으로 오면 또 군인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군인들이 그거 무척 좋아했어요. (면담자 - 어떤 거요?) 아가씨들. (면담자 - 아가씨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요?) 얘기하는 거, 곁에 앉으면 더 좋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30)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www.kci.go.kr

한 사실은 "미성년자가 관람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연물이 허다"하다는 강원도 공보실의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31]

군인극장 평일 민간인 주요 관객이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었던 상황은 화천과 철원 그리고 양구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육군 2군단이 운영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군인극장[32]으로 가는 길 골목은 술집과 다방, 룸살롱 그리고 여관 등이 즐비했다. 가히, 전후 강원도 수복 지역 군부대 소재지 경제는 군인과 유흥업소 여성들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다.[33] 군부대 비상소집이 발동하여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는 경우, 그것은 지역 경제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를 의미할 정도였다.

설악극장이 성(性)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자주 상영해서인지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10대 청소년의 무료입장은 볼 수 없었다. 대신에, 군인극장 무료입장을 시도하는 자들은 지역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은 보안대와 헌병대 등 군부대 소속 군인이 많았던 반면, 인제읍 군인극장 '인제문화관'을 무료로 찾은 자들은 지역 경찰관이었다.[34]

4. 군인극장과 지역 극장문화 재편

군인극장은 상영 작품과 필름 배급 그리고 영화 선전 방식 등 민간인

31) 「공연장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군인극장 처리에 대한 건의」, 국가기록원 http://mospa.go.kr

32) 2013년 현재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이기자' 회관 자리가 군인극장이다.

33) 특정 부류의 여성 집단이 극장 관객을 형성한 경우는 군인극장을 벗어난 곳에서도 쉽게 발견되었다. 거진과 대진 등 항구를 끼고 발달한 지역의 경우가 그러하다.

34)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최광일(1947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6일.

www.kci.go.kr

운영 일반상업극장과 다를 바 없었다. 군인극장의 특징이라면, 관객 다수가 특정 부류의 집단 - 군인과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 - 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는 군인극장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하고, 나아가 군인극장이 가져온 지역 극장 문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4-1. 국책 선전 확대 및 도시문화 대리 경험

강원도 비도시 군단 소재지 군인극장 설립은 영화 상영과 관람 경험의 변화를 의미했다. 군인극장은 16mm 순업에 의한 영화 상영을 대체하면서,[35] 군인은 물론 지역민까지 아우르는 영화 상영 공간이 되었다. 군인극장은 일반 극장과 마찬가지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면서 국책을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군인극장은 나름의 이유로 군인과 지역민의 결핍된 욕망을 보상하는 장치였다. 군인극장은 군인들에게 집단생활 복무에 따른 긴장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군인극장은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도시 지역민의 도시 문화 대리 경험 장소였다. 1960년 화천군 화천면 하리 군인극장 개관 작품이 〈로맨스빠빠〉(신상옥, 1960)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극장은 그 자체로 해당 지역의 최첨단 대중매체였고 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통로였다. 특히, 1962년까지 라디오가 한 대도 없는 농어촌 자연부락이 전국에 걸쳐 15,000여 곳에 달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1962년 8월부

35) “16mm 가지고 부대를 다니면서 영화를 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군인극장 생기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죠.”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www.kci.go.kr

터 3개월간 농어촌 주민들에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친 사실을 떠올리면,[36] 하리 군인극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이 영화 작품을 "신문에나 이런 데서 인기가 있고 서울에서 잘 됐고 하는 거를 다 수소문해서" 선정하고,[37] 실제로 서울 개봉관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상영했을 때 관객 숫자 역시 증가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군인극장을 경유해 도시 문화를 경험하려는 지역민의 욕망에 군부대 역시 응답했다. 강원도 비도시 지역에서 오일장(五日場) 관행이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던 1960년대 후반, 육군 3군단 수송부는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군부대 트럭을 보내 지역민의 영화 관람을 독려했다. 예를 들어, 군부대는 원통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인제읍 가아리 상촌(上村)과 같은 오지에 차량을 보내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했다. 군부대 트럭을 이용해 원통에 도착한 지역민은 각자의 일을 마치고 설악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이후 다시 군부대 트럭을 이용해 귀가했는데, 이때 승차권은 영화 관람표가 대신했다.[38] 다시 말해, 군인극장은 국방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설립되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운영되었지만, 지역민들은 군인극장을 그들의 이해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인극장에서 상연/상연된 문화 향유 대상에 대한 지역민의 양가적인 태도이다. 군인극장은 흥행의 주요 목록으로 영화 이외에 악극단과 여성국극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도 '여성 국악단 임춘앵' 공연이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 무대에 올랐기 때

36) 강원일보사, 『강원일보사십년사』, 1985, 132쪽.
37)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38)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4년 2월 12일.

www.kci.go.kr

문이다.[39] 1970년대 초반까지 설악극장을 찾은 여성국극단의 방문 횟수는 1년에 3~4회에 그칠 정도였지만 지역민들은 "(여성국극단이 - 필자주) 한 번 오면 돈을 아꼈다가 그걸 꼭 보려고"[40] 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도시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여성국극[41] 공연이 강원도 비도시 지역민 감성과 맞물리면서 인기를 누린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민/관객은 영화 관람을 통해 도시 문화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한편으로, 도시와 비도시 사이 시차를 두고 벌어진 문화 행위에도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1960년대까지도 강원도 절대 다수의 인구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고려하면,[42] 비도시 지역민이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대 공연 예술에 환호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4-2. 군부대 수익 사업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에 따르면, 군인극장 활동을 기록한 군부대(軍部隊) 관련 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군인극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한 줄로 기록된 '군인 및 주민 대상으로 방첩영화 및 극영화로 북괴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켰다'는 문구이다.[43] 즉, 군인극장은 '북괴에 대한

39) '여성 국악단 임춘앵'의 공연 활동은 1967년 중단되었다. 반재식・김은식 공저, 『여성국극 왕자 임춘앵 전기』, 도서출판 백중당, 2002, 634쪽.
40)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41) 1958년 3월 12일자 서울신문은 이미 창극단 공연이 "중앙지대에서 변두리로, 지방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창극단과 극장주의 이윤 배분도 이전과 달리, 갈수록 극장 쪽으로 유리하게 배정되어갔다. 반재식・김은신 공저, 『여성국극 왕자 임춘앵 전기』, 도서출판 백중당, 2002, 543~545쪽.
42) 1960년 강원도 총인구 가운데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시・읍 인구수로 계산하면 29.8%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시급도시 인구수 비율은 전체의 13.4%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강원도 거의 대부분 인구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원도, 『강원도사 1: 자연・인문환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461쪽.
43)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손OO 소위 통화(通話) 증언. 통화일자 2013년 12월 6일.

www.kci.go.kr

증오심' 고양을 표방하고 훈육하는 기관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과 군인극장 근무 관련자들의 구술 증언을 종합하면, 군인극장은 단순히 이데올로기 선전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부터 육군 제2군단과 제3군단이 운영한 군인극장은 강원도 공보실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화천군 군인극장과 양구군 군인극장이 공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공보실은 영화 상영 관리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감독권 행사를 주장하기 위해 군부대 측에 공연장 허가를 받도록 독촉하였다. 공보실이 지적한 공연장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인극장의 폐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군인극장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치외법권적인 처사"였다.[44] 공보실은 군인극장이 "국가 수입의 하나인 극장 운영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포탈"[45]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단은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이니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공보실은 강원도지사가 직접 제2・제3군단장에게 공연관계 법률 준수를 종용하도록 청원하거나 국방부와 공보부 그리고 재무부 3부가 합의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제3군단 직영 일부 극장들은 1960년대 후반에 와서야 공연장 허가를 취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초기 비도시 지역 군인극장은 수년 동안 특권적 면세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군단 수익사업이니까 부대에서 동원을 시켰지"라는 인제군 설악극장 관객 관리 담당자의 단언(斷言)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46]

44) 「공연장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군인극장 처리에 대한 건의」, 국가기록원 http://mospa.go.kr

45) 「공연장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군인극장 처리에 대한 건의」, 국가기록원 http://mospa.go.kr

www.kci.go.kr

군인극장은 군부대 수익을 창출하는 안정적 채널(channels)이었다. 평일 2회와 주말 최대 4회라는 상영 횟수는 동시기 여느 군(郡) 단위 지역 상설극장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군부대 수송부가 실어 나른 군인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 군부대 트럭은 최대 30명까지 수용 가능했기 때문에 평일 1~2대와 주말 10대에 승차한 군인들의 숫자를 계산하면, 평일 최대 60명과 주말 최대 300명이 정기적으로 영화를 관람했다는 말이 된다. 군인들의 단체 동원 영화 관람은 암묵적 동의에 따른 일종의 반강제적 성격을 지녔다. 영화 관람이 부대 책임자의 통솔 아래 이뤄졌고, 사병들의 관람료는 입장권 구매가 아니라 관람 인원 숫자를 기록한 '차용증'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차용증이 군인극장을 경유해 군단 본부대에 제출되면, 영화 관람료는 사병 각자의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控除)되는 방식이었다. 외출이나 휴가를 받아 극장을 찾은 군인들은 차용증이 아니라 입장권 또는 현금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했다.

군인극장이 군단 수익 사업 방편이었던 사실은 극장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직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육군 3군단 관할 군인극장을 예로 들어보자. 3군단 관할 전체 6개 군인극장은 중령(中領) 직급의 본부대장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운영 수익은 군단으로 귀속되었다. 개별 군인극장 실무 책임 역시 고위급 간부에게 주어졌다. 군인극장 실무(實務)는 상사(上士)의 책임이었지만, 극장에 따라 중사(中士) 또는 준위(准尉)가 책임을 맡기도 했다. 일반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상사 이상(以上) 직급의 군인이 실무를 책임진 것은 그만큼 극장 운영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47]

---

46)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관객 출입 관리 담당 최광일(1947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6일.

47) 군인의 직급은 이병-일병-상병-병장, 하사-중사-상사-원사, 준위-소위-중위-대위, 소령-중령-대령, 준장-소장-중장 그리고 대장으로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www.kci.go.kr

군인극장에 관심을 기울인 흔적은 극장 운영의 필수적 존재 영사기사에 대한 처우에서도 드러난다.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 영사기사로 복무한 김승기의 예가 그것을 증명한다. 김승기는 입대이후 부산 병기학교에서[48] 16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육군 3군단 상사 이상재의 방문을 맞게 된다. 이상재에 의해 영사병으로 차출(差出)된 김승기는 보충대(補充隊) 훈련도 받지 않고 설악극장으로 배속을 받았다. 김승기는 설악극장 영사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3군단 관할 전체 군인극장 영사실을 순회하면서 영사 기술 전수와 영사기 관리를 도맡아 했다. 김승기의 존재가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대우도 파격적이어서, 김승기는 "사병이라도 장교처럼" 옷을 입고 다녔으며 내무반이 아니라 군부대 바깥 사가(私家)에서 출퇴근하는 특혜를 누렸다. 일반 병사를 영사기사로 차출하는 군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한데다 오랫동안 순업과 극장에서 경력을 쌓은 김승기만큼 영사 기술에 능통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그는 만기 제대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설악극장에서 근무하였다.

4-3. 극장 구도 재편과 영화 상영 및 관람 문화 변화

군인극장 개관은 강원도 비도시 극장 구도 재편은 물론 영화 상영과 관람 문화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절대 다수의 군인극장이 해당 지역 최초 극장이거나 영세 규모의 민간인 운영 극장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비도시 지역은 1960년대 중후반은 물론, 지역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 16mm 필름을 상영하는 순업이 활동하고 있었다.[49]

48) 당시 부산직할시 대연동 육군병기학교를 말한다.
49)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강원도 비도시 지역 16mm 순업은 동시기 여타 지역

www.kci.go.kr

강원도 비도시에서 16mm 순업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했다. 원주와 춘천, 강릉과 속초 등 도시를 벗어난 강원도 비도시 지역 인구는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으며, 산간 지역이 많아 접근성이 떨어졌다.[50]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순회하는 입장에서 이동성 문제는 중요했는데, 이를 충족시킨 것은 소규모 경량의 16mm 영사기와 발전기였다.

일개 마을에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며 5~6개 작품을 상영한 순업 일행이 소지한 필름 상태는 상영에 적합하지 않았다. 순회를 마친 필름들은 다른 순업 일행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될 정도로 "토막 난" 상태의 것들이었다.[51] 관리 소홀로 필름에 먼지

중소도시 순업과 달리 독특한 양상이었다. 예를 들어, 평야 농업 지역인 호남의 중소도시 순업 흥행사들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16mm에서 35mm 영사기로 모두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다할미디어, 2007.

50) 강원도 비도시 지역 인구가 산포(散布)된 까닭에 순업의 지역별 흥행 수익 차이도 발생했다. 순업은 태백 등 탄광 지역과 같이 마을이 집결된 곳에서 흥행 수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관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동해안 바닷가와 같이 지역민의 거주지가 분산된 곳에서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순업은 속초시 주문진 항구와 고성군 아야진 항구와 같이 인구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 주로 흥행을 했다. 양구군 양구읍 문화극장 영사기사 신웅대(1943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14일.

51) 양구군 양구읍 문화극장 영사기사 신웅대(1943년생)의 구술. 신웅대는 어려서부터 라디오 판매 및 수리가게를 드나들면서 전기 기술에 관심과 소질을 보였다. 1950년대 후반 중학생 신웅대는 양구읍 문화극장을 들락거리다가 문화극장 영사실 책임자의 눈에 들어 영사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제대(除隊) 이후, 신웅대는 2년 동안 순업에 종사했다. 1960년대 신웅대의 순업 지역은 무척이나 광범위했다. 그는 원주시 외곽은 물론, 화천과 양구 등 수복 지역, 평창과 정선 등 내륙 산간 지역, 강릉시 옥계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등 동해안 항구 지역, 그리고 태백 등 탄광 지역을 모두 순회했다. 한마디로, 신웅대는 강원도 전 지역에서 흥행을 하였다. 신웅대는 1970년 9월 1일 영사기사 2급을 취득하였고, 이후 양구군청 공보실 직원으로 취직해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공보실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4~5년 정도 강원도 일대 시골 마을을 순회하면서 공보 전달과 병행한 16mm 영화를 상영했다. 구술일자 2013년 8월 14일.

www.kci.go.kr

가 끼고 햇볕을 받아 빛이 바래지면서 필름 상태는 나빠졌으며, 영사기 부속의 마모(磨耗)로 상영 도중 쉽게 끊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16mm 필름은 카보나이트(carbonite)가 아니라 전구를 사용해 영사했기 때문에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흐렸다. 일개 마을 상영 기간과 상영 횟수 역시 흥행 정도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52] 따라서 강원도 비도시 16mm 순업 영화는 관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다.[53] 1960년대 중반까지 강원도 비도시 지역 16mm 순업 영화 상영은 변사 연행을 수반하였다. 1964년까지 순업 영사기사는 대본(臺本)을 훑어보고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윤대룡, 1948)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해설하는 방식을 취했다.[54] 즉, 지역적 특성과 상영 환경에 따라 영화 내용이 각색되고 변조(變造)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군인극장은 비도시 영화 상영과 관람 문화의 재정비를 의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제군 원통 설악극장이 기존의 민간인 운영 원통극장에 비해 건물 구조와 관람 환경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 점이다. 100석에도 미치지 못한 원통극장에 비해, 300석에 이르는 설악극장 객석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 개의 기다란 의자에 5명이 앉는 원통극장과 달리, 설악극장은 개별의자를 설치하여 관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송판 쪼가리를

52) "가설극장을 지어놓고 열흘이면 열흘 뭐 다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랬죠."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53) 순업의 흥행 수익은 불안정했다. 16mm 순업의 수익은 일정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벌 적에는 (집에) 많이 갖다 줬다가 또 못 벌 적에는 그걸 도로 가져가서" 쓰는 형국이 벌어졌다. 1회 상영에 평균 20~30명 정도 입장하는 경우, 순업의 숙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영사기를 담보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54)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www.kci.go.kr

붙여 만든 '하꼬방' 건물 원통극장과 달리, 설악극장은 정식 건축물이어서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영세한 탓으로 선풍기를 설치할 수 없어 한여름 영화 상영을 중단한 원통극장과 달리, 설악극장은 극장 건물 천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했다. 겨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원통극장의 부실한 건물은 차가운 외풍을 막아낼 수 없었지만, 군부대 기름을 사용한 설악극장은 난로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안락한 환경을 제공했다.

지역민/관객이 설악극장에 특별히 만족한 이유는 영화 상영 횟수와 기간의 규칙성과 안정성이었다. 평일 휴관하고 주말 주야 각 1회 또는 상황에 따라 주말 1회 상영에 그친 원통극장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군인극장 등장은 지역민/관객의 영화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6mm 순업 영화를 관람한 지역민/관객은 영화 관람을 '활동사진 보러간다'고 표현했으나, 군인극장이 개관하면서 활동사진이 아니라 '영화'로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55] 군인극장 등장은 영화를 더 이상 일시적 볼거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경험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한편, 군인극장이 개관하면서 민간인에 의해 운영된 극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순업에 종사한 김창선이 설립한[56] 원통극장은 35mm

55)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56) 인제군 북면 원통리 원통극장 설립자는 김창선이다. 김창선은 원통극장 설립 이전 강원도 일대에서 16mm 필름으로 순업에 종사한 인물이다. 그의 1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의 지역 출신도 다양했다. 순업 흥행사 김창선 자신은 이북 고성군 거진 출신 월남민이었으며, 일행들은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인제군 신남면,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갈월리, 그리고 김승기 자신은 인제군 원통 출신이었다. 강원도 비도시 순업은 여타 지역 - 예를 들어, 전남북도 지역 - 흥행사들이 사용한 '로뗀바리'라는 용어 대신 '나까시하러 다닌다'고 표현했다. 순업에 필름을 제공한 담당자를 나카시(なかし, 仲仕)로 불렀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김승

www.kci.go.kr

영사기까지 갖추고 〈벤허 Ben-Hur〉(1959)와 〈십계〉(1956) 등 볼거리 넘치는 작품을 상영했지만, 개관한지 4~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설악극장[57] 개관으로 관객이 줄어들어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김창선은 원통극장 운영을 중단하고 예전의 16mm 영화 순업을 재개하였다. 군인극장은 경쟁력이 떨어진 민간인 극장을 도태시키고 지역 극장 운영을 독점하면서, 순업을 더욱 주변적인 존재로 위치시킨 것이다.

군인극장이 지역 극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도시에 버금갈 상영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군인극장 상영 작품은 지역별 필름 판권(板權)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봉한지 최소 1년 보통 2~3년이 지난 필름으로는 도시와 동시간대 영화 문화를 형성할 수 없었다. 부실한 영사기 또한 도시와 같은 영화 관람 문화 형성을 방해하였다. 대부분 군인극장 영사기는 마모가 심한 노후한 것들이어서 영사 도중 필름이 잘려나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58] 게다가, 겨울철 폭설로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 필름 공급마저 끊겨 예정된 영화 상영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극장이자 상설극장 군인극장은 지역에서 패권적인 영화 상영 공간으로 자리해갔다.

군인극장의 지역 영화 상영 공간 단일화는 육군 3군단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육군 2군단 운영 화천군 화천면 하리 군인극장 역시 개관과 함께 지역 영화 상영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부터 드물게 영화를 상영한 가설극장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특히, 하리 군인극장은

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

57) 2014년 2월 현재 인제군 북면 면사무소 길 건너 '원통종합복지타운' 자리에 설악극장이 있었다.

58)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울의 개봉관과 재개봉관 역시 노후한 영사기재가 영화 상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12, 84쪽.

www.kci.go.kr

공회당(公會堂)의 영화 상영 활동을 중단시켰다.[59] 군인극장 등장 이전, 하리 공회당은 지역 엘리트(local elite) 정경균[60]의 주도로 지역민 계몽 차원에서 영화 상영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화천문화원장 한상우가 1958년경 공회당 영화 관람을 기억하는 것을 보았을 때, 1950년대 후반까지 화천군 화천면 영화 상영은 공회당에서 이뤄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화천군 군인극장 개관은 지역의 '공(公)' 담론을 군대(軍隊) 활동과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군대와 관련된 활동으로 축소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화천군 화천면 하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사내면 사창리 역시 군인극장 개관으로 가설극장이 사라져갔다.

군인극장이 민간인 극장을 소멸시키지 않고 병립한 경우도 있었다.[61] 하지만 그것은 양구군 중리 군인극장 한 곳에만 해당된 일이었다. 군인극장 개관에도 불구하고, 중리 문화극장이 운영을 지속한 이유는 상설극장으로서 제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1973년 10월 소양강댐 완공[62] 이전까지 양구군에 거주한 대규모 인구 역시 군인극장과 민간인 극장의 병립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63]

---

59) 화천군 화천읍 화천문화원장 한상우(1944년생)와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정종성(1961년생)의 구술. 정종성은 인천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 중반 화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구술일자 2011년 8월 26일.

60) 정경균은 2013년 현재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정종성(1961년생)의 부친이다. 정경균은 호적상 192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930년생이다.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전 남한으로 이주,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한국전쟁 동안 미8군 관측대대 군무원(軍務員)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유랑극단을 운영하였다.

61) 도시에서 영업한 군인극장 가운데 민간인 극장과 병립하여 운영된 군인극장은 원주시에서 발견된다.

62) 소양강댐은 1967년 4월 착공하여 1973년 10월 완공되었다. 소양감댐의 완공되면서 수몰된 지역은 춘천시와 양구군 그리고 인제군 3개 시군과 6개 면 38개 리였다. 해당 지역 주민 4,600세대가 타지로 이주하면서 양구군 인구는 감소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www.kci.go.kr

5. 군인극장의 지역성

강원도 비도시 수복 지역 극장 구도를 재편한 군인극장은 영화 관객층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전국적인 상설극장 증대를 의미했다. 1960년대 전반에 걸쳐 개관한 화천군과 인제군 군인극장을 논외로 하더라도, 1970년대 중반까지 인제군 현리 군인극장과 철원군 신철원문화관 그리고 고성군 간성문화관 개관은 주목할 현상이었다. 1970년에 들어 전국적으로 극장 숫자가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극장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64] 따라서 1970년대까지 지속된 강원도 군인극장 개관은 동시기 위축된 한국 영화산업이 소극적이나마 찾은 활로였던 것이다. 1970년대 전반에 걸쳐 강원도 비도시에서 문화관이라는 명칭으로 영화를 상영한 기관들이 모두 해당 군(郡) 소유였던 사실을 통해,[65] 군인극장이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를 맞이한 극장산업의 출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유(私有) 극장에 비해, 군유(郡有) 극장의 운명은 흥행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군인극장 개관은 이윤 확장을 꾀하는 영화산업 논리에서 그치지 않았

63) 양구군 양구읍내를 벗어난 지역 영화 상영은 양구군청 공보계가 담당했다. 공보계의 양구 관내 영화 상영은 다분히 국책 선전과 홍보 성격이 강했다. 공보계는 영화 상영을 빌미로 지역민을 집합시키고 양구군수의 군정 관련 발언을 수행한 다음에 대한뉴스와 극영화를 상영했다. 양구군 양구읍 문화극장 영사기사 신웅대(1943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14일.

64)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12, 31쪽 인용.

65) 홍천군 홍천극장, 평창군 평창면 평창문화관 및 진부면 진부문화관과 대화면 대화문화관, 정선군 산동면 조동문화관, 철원군 동성면 문화극장 및 서면 와수문화관과 갈말면 신철원문화관, 양구군 양구면 양구문화관, 그리고 고성군 간성면 간성문화관이 이에 해당된다. 홍천극장의 명칭은 예외적이다. 한국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1977』, 1978, 182~183쪽.

www.kci.go.kr

다. 군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일차적 대상으로 분단 최전선이자 수복지역에 들어선 군인극장은 영화 상영 주체 및 기관의 통일은 물론 문화 전파 통로의 일원화를 의미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인극장은 가설극장과 순업 그리고 지역 공회당 등 다양한 상영 주체의 소멸을 가져왔다. 특히, 군인극장 개관과 함께 공회당 영화 상영이 중단된 것은 강원도 비도시 지역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1950년대 '지방'에서 영화를 포함한 문화 전파 기구는 공회당을 비롯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수 설립된 문화원(文化院)이었다. 지역에 따라 명칭도 다양했던 공리(公利)를 표방한 이들 기구들은[66] 1962년 1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창립하고 '향토(鄕土)' 문화 발굴과 함께 지역 계몽과 국책 선전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영화 상영 활동에 주력했다.

하지만 강원도 비도시 수복지역 영화 상영이 문화원이 아니라 군인극장으로 일원화 된 것은 이들 지역 극장 문화의 변별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전쟁 기간 강원도 도시 지역은 일찍부터 문화원 활동을 시작했지만,[67] 비도시 지역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문화원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68] 1960년대 전반과 중후반에 걸쳐 군인극장이 비도시 영화 상영을 담당했기 때문에 영화 상영은 문화원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

66) 지역 공리(公利)를 표방한 이들 기구는 공회당, 공보관(公報館), 공민관(公民館), 공보원(公報院) 또는 OO읍공관(邑公館), 문예관(文藝館), 문화원(文化院), 문화관(文化館)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복지관(福祉館), 산업관(産業館), 읍민관(邑民館), 소방회관(消防會館)으로 불리거나 특별한 수식어 없이 회관(會館) 또는 회당(會堂)으로 불렸다. 공보부 조사국, 『전국시도 공보과(계)·전국공보관 문화원·전국농촌 문고 실태조사보고서』 1961년 10월 1일 현재, 1961.

67) 1952년 춘천문화원, 1954년 강릉문화원 그리고 1958년 원주문화원이 활동을 시작했다.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89쪽.

68) 양구문화원은 1966년, 화천문화원과 철원문화원은 1969년에 개원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편, 『한국의 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 270~277쪽.

www.kci.go.kr

이다. 군단 소재지 문화원 관계자 역시 군인극장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군인극장과 문화원은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network)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1966년 설립된 양구문화원 초대 원장 박영희는 재향군인회 강원도 감사(監事)를 역임했으며, 1969년 개원한 화천문화원 원장 곽종옥은 재향군인회 화천군 연합분회 분회장을 역임했다.[69] 특히, 공연장 허가를 둘러싸고 수년에 걸쳐 군인극장과 강원도 공보실 간 갈등이 지속된 사실은 군인극장 운영에 군부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강원도 비도시 수복지역 군인극장은 패권적인 지위를 장악한 군부대가 민(民)을 조직적으로 결합시켜 운영한 '군(軍)'을 위한 극장이었다.

6. 결론

이 글은 냉전시기 영화 상영 문화의 지역성을 살피기 위해 강원도 비도시 지역 군인극장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군인극장은 195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강원도 군단((軍團) 소재지 -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고성 - 일대에서 개관한 군인과 지역민을 위한 상업극장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살핀 내용은 군인극장 운영 방식, 군인극장 기능 및 역할과 위상, 군인극장 개관으로 인한 지역 극장문화 변화 그리고 군인극장의 지역성 등이다. 군인극장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에 더하여 일상생활 경험으로서 군인극장 성격 파악을 위해 주로 군인극장 및 문화 단체 관련자 구술 증언을 재구성하고 분석하였다.

군인극장은 일반 상업극장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

69) 한국문화원연합회 편, 『한국의 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 270~277쪽.

www.kci.go.kr

으며, 대중매체 접근성이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문화를 경험하는 대안적 장소로 기능했다. 군인극장 개관은 가설극장과 순업에 의한 영화 소비 관행을 소멸시키면서 지역 극장 구도를 재편하였다. 무엇보다도, 군인극장은 군단 수익 사업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지역 영화 상영 창구를 일원화하고 문화 전파 기구를 단일화시켰다.

강원도 비도시 군인극장 연구는 그동안 역사 서술(敍述)에서 누락 또는 삭제된 기록을 발굴하여 영화 상영 문화의 지역성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 아래 극장에서 펼쳐진 다층적 문화 양상은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민 정체성을 살피는 주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 수복 지역이자 대규모 군부대 주둔지 강원도 비도시 극장문화 발굴은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한국영화사 기술(記述)의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는 동시에 민간인 운영 상설극장 중심의 극장 문화사 연구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군인극장은 냉전을 배경으로 강원도 비도시 지역 영화 상영 문화 전반을 변화시킨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것의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을 폭넓게 규명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군단(軍團)의 군인극장 설립과 운영 방침에 대한 시기별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는 차후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강원도,『강원도사 1: 자연・인문환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0.
강원일보사,『강원일보사십년사』, 1985.
공보부 조사국,『전국시도 공보과(계)・전국공보관 문화원・전국농촌 문고 실태조사보고서』1961년 10월 1일 현재, 1961.
국가기록원 http://mospa.go.kr
국군홍보관리소 편,『군영화사십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2.
국제영화사,『1970 영화연예연감』, 1969.
김기제 편,『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원주문화원향토지편찬위원회 편저,『원주원성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
이상학 저,『강원도지』, 동서문화사, 단기 4289(1956).
영화진흥공사,『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한국문화원연합회 편,『한국의 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한국영화진흥공사,『한국영화연감 1977』, 1978.

2. 신문 기사

「군인극장 개관」,『조선일보』, 1958.1.3., 석7면.
「군인극장신설 각군단소재지에」,『동아일보』, 1959.7.30., 석3면.
「군인극장이 불응. 학교 주변 환경 정리에」,『조선일보』, 1959.2.12., 4면.
「군인극장 위안회성황」,『강원일보』, 1958.5.7., 2면.
「귀순환영대회」,『강원일보』, 1959.6.17., 2면.
「〈내고장소식〉군인극장 개관」,『조선일보』, 1960.6.15., 4면,
「원주 군인극장 전소. 1일 저녁 인명피해 경미」,『조선일보』, 1957.5.2., 2면.
「원주에 군인극장」,『서울신문』, 1956.1.14., 3면.

3. 구술 자료

양구군 양구읍 문화극장 영사기사 신응대(1943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14일.

www.kci.go.kr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손OO 소위 통화(通話) 증언. 통화일자 2013년 12월 6일.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관객 출입 관리 담당 최광일(1947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6일.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극장 영사기사 김승기(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3년 8월 5일과 2014년 2월 12일.
철원군 신철원문화관(속칭 신철원군인극장) 매점 관리인 이건영(1939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9일.
철원군 철원문화원장 김준수(1938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9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정종성(1961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6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문화원장 한상우(1944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1년 8월 26일.

4. 논문 및 단행본

반재식・김은신 공저, 『여성 국극 왕자 임춘앵 전기』, 도서출판 백중당, 2002.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3, 543~581쪽.
_____, 『호남의 극장문화사』, 다할미디어, 2007.
이길성 외,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www.kci.go.kr

Abstract

The Military-Civilian Cooperation and Film Exhibition Practices
: "Military Movie Theaters" in Gwangwon-do

Wee, Gyeong-Hae(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historical examination of film exhibition practices investigates "military movie theaters" in non-urban areas of Gwangwon-do in northeastern Korea. Gwangwon-do contained a few cities and many rural areas, isolated by mountains; thus, its rural inhabitants had little access to urban movie theaters. In several parts of this region, massive military camps were established near the DMZ, the military border with North Korea. In these camps, the army's corps set up several military movie theaters from 1959 to the mid-1970s,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U.S. military.

This paper explores three dimensions of the military movie theater. First, I examine the management of the movie theaters, including their openings, functions, roles, and audiences. Second, I look at the movie theaters in the contexts of the film industry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70s. Third, I study the meaning of the movie theaters in the contexts of society and the Cold War. As part of my study, I analyze written documents published by a film studies organization, oral testimonies from people involved in the movie theaters, and the Seoul and Gwangwon-do daily newspapers from the post-Korean War period.

I conclude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management of the military movie theaters did not differ from urban ones that were more profit oriented. The films and the audiences of both types of theaters were quite similar. Propaganda and commercial films were screened for soldiers and rural civilians, including female prostitutes, at the military camps. Second, the movie theaters functioned as arenas for government policies by showing propaganda films and, at the same time, as substitute places for urban culture, which the rural people had not experienced because of the inaccessibility of mass media. Third, they provided entertainment for soldi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movie theaters also earned profits for each army corps, since they showed commercial films to the civilians in their regions.

www.kci.go.kr

Finally, the military movie theaters resulted in the eventual disappearance of temporary movie theaters and mobile film units in rural communities, leading to the reconstruction of film exhibition practices in non-urban areas. Accordingly, the movie theaters diffused culture and shaped public opinion by unifying the channels of film exhibition in many rural areas of Gwangwon-do.

(Key words : Gangwon-do, Film Exhibition, Movie Theater, Military Movie Theater, Military Camp, Mobile Film Unit, Cold War, Locality, Prostituted Woman, Cheorwon-gun, Hwacheon-gun, Inje-gun, Yanggu-gun, Goseong-gun, Recreation Facilities, Movie Theater Culture, Munhwakwan, Cultural Center)

투고일 : 2014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4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

www.kci.go.kr